



글로벌 명품 연동

연동지널

YEONDONG JOURNAL 2020. 12 Vol.15



CONTENTS

2020. 12 Vol.15

발간사

01 “연동저널” 발간사

인사말

02 인사말

마을소개

06 연동마을

09 연동오름

기고문

14 주민자치위원회를 넘어 새로운 주민자치회를 준비하자

16 초등돌봄 파업 사태를 바라보는 학부모들은 불안하다

17 제주농업과 제주관광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18 지방자치 시대의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에 대한 제언

21 風水地理와 水脈-수맥 탐지와 수맥파 차단방법

24 코로나19가 만든 달라진 제주관광의 일상

연동자생단체장

25 연동자생단체장 현황 및 단체활동사항

주민자치위원회

28 제11기 연동주민자치위원회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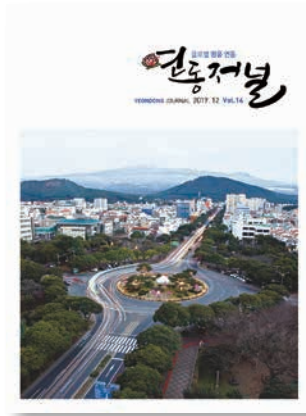
29 주민자치위원회 이모저모

분과위원회

30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 소개 및 활동사항

편찬후기

32 편찬후기



발행처 연동주민자치위원회

발행인 강석진 주민자치위원장

편찬위원
위원장 황경남 주민자치부위원장
분과위원장 한보유, 오진근, 고담용
분과위원 임승현, 이한봉, 양영중, 이은숙
(당연직)위원 김영중 총무이사, 김미연 재무이사
간사 고창용 기획홍보분과위원장

발행일 2020년 12월 23일

주소 63122 제주시 신대로 101(연동)

전화 064.728.1542

팩스 064.728.4997

디자인 디자인신우 064.746.5030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동주민자치위원장
강 석 진

연동
저널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연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강석진입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마치 얼음송곳이라도 달린 것처럼 바람이 차갑습니다.

12월 말이 되니 불어오는 바람도 한 달 전과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글로벌 확산과 함께 국내 감염자의 감염확대로 인해 우리 모두의 일상은 큰 충격을 받았고 잠잠해질 줄 알았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기치 못한 확산으로 건강에 대한 불안감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지만,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바람을 피하지 못하고 온몸을 바람에 내맡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온기를 조금 나눠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작고 낮은 곳에서 이웃과 함께하며 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연동자생단체장님들과 회원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연동자생단체 회원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낮은 자세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어떤 대가나 보답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봉사활동을 펴온 자생단체 회원들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우리 연동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동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하여 자생단체는 연동주민 모두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해 봉사할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봉사가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봉사를 만들기 위한 취지라는 점만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자원봉사 정신이야말로 인류사회의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사랑과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공동체 정신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해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을 한다는 신념으로 묵묵히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신 자생단체 회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온(溫) 동네를 만드는 사람들의 삶이 있는 곳, 연동!



연동주민자치위원회의 제15호 연동저널 발간을 동민과 함께 기뻐하고 축하드립니다.

지난 2006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소식지 내용 구성에서부터 기사 작성, 원고 편집 등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수행함으로써 발간의 의미를 더 해 뜻깊고 정감이 있습니다.

제주지역에서 2월 21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시민들은 일상에서 혹시나 열은 없는지, 기침하지는 않는지, 몸이 불편한 건 아닌지 걱정하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쓰기과 거리두기 속에서 사람과의 직접 만남 대신에 연동저널이 마음있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 한해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경로당, 버스정류장,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촘촘한 방역을 시작으로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생활 폐기물 업 사이클링, 어려운 집 주거환경 개선, 반찬 배달, 김장김치 나눔, 학생안전, 365일 꽃피는 거리 조성 등 우리동네를 지키고 가꾸는 아름다운 활동을 전개해 주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각자 소임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 연동은 건강합니다.

동(洞)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대형폐기물 중간 집하장 조성, 희망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힘이 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특히 오랜 숙원인 청사 신축은 내년도 용역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동저널이 계속해서 현장의 생생한 정보와 이야기들을 공유해 동민들과 적극소통하는 활발한 소통창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연동장

문재원

연동저널 제15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연동주민의 삶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힘들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매주 동네 방역에 애써주신 자생단체 회원님들과 연동주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주의 강인한 삶의 바탕에는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수눌음 정신이 있습니다. 수눌음 정신을 바탕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켜나가면 지금의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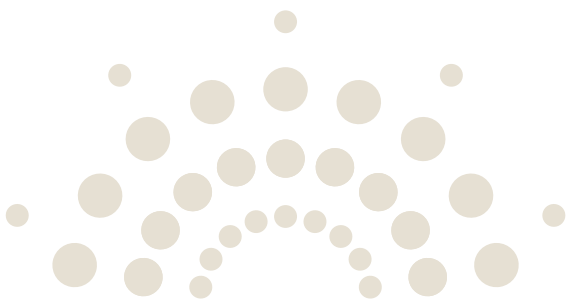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해 지칠대로 지친 주민들은 오로지 행정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적극인 행정, 신속한 행정, 희망과 비전을 주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환경변화와 연동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에는 연동주민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양영식



연동저널 제15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동주민자치위원회의 소식을 충실히 담아 연동주민들의 소식통이 되고 있는 연동저널 제15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우리 연동이 이루어온 역사가 지역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주민들이 있기에 미래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여러 가지 활동에도 제약을 받고 있기에 지역주민들은 삶의 소소한 행복을 잊고 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지역주민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 지역의 상황이나 정보를 알차게 얻을 수 있는 연동저널의 발간은 가뭄에 단비 같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지역적·정신적 가치를 높이는 연동저널 발간을 위해 많은 정성을 쏟아 오신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편집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뜨거운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철남

연동저널 제15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연동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창식 의원, 인사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 평온했던 일상이 무너지고, 유난히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만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이웃의 생존과 안전 없이 나의 평화와 안전도 있을 수 없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런 큰 위기 속에서도, 우리 연동 주민들께서는 잘 견뎌내고 계십니다.

'나 보다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해 오신 주민과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각 자생단체들이 만들어 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과 휴식의 경계도 없이 연동 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오신 주민 여러분, 주민자치위원, 각 자생단체장님과 단체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 연동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던 애향의 보람을 엮어 연동저널 제15호를 펴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주민들 간에 서로 벗이 되고 또 가족이 되는 사랑의 메신저를 만들어 주신 강석진 위원장님과 주민자치위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재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주민 여러분 모두가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고, 새로운 일상의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등 더 힘을 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제 곧 2021년 새해가 밝아오는데, 주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김창식

연동 마을

연동 옛마을 연대별 변천사

蓮洞

1600년대

연동에 처음 거주한 선인들을 전씨와 고씨로 전해 지고 있으나 그 시기는 확실하지 않다. 좀더 정확한 것은 풍천임씨가 거주한 시기인 1680년경이라고 한다.

최초의 설촌시거지는 현재 연동의 서남쪽에 있는 서동(西洞, 섯동네)으로 '산나물우영'과 '고당의집터'라고 이르는 곳이다.

설촌 초창기의 부락 명칭은 '잇골' 또는 '연골'이라 하였고, 그 후 사람들이 계속 이주하여 부락형태를 이루면서 연골은 '연동촌' 또는 '연동'으로 불리게 되었다. 특히 연동이라고 한 데는 '남짓은오름' 북서쪽에 있는 명당이라는 연화도수형의 지형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700년대

임씨에 이어 제주양씨(1715년경), 같은 시기에 김해김씨, 해주오씨(1729년경), 이천서씨(1734년경), 아산박씨(1769년경) 등이 차례로 연동에 이주하였다.

1791년경에는 김해김씨와 제주양씨가 이주하여 동성으로서는 두 번째가 되는 셈이다.

1800년대

1800년(정조24년)이 되어 설촌된 지 200여년이 흐르는 동안 연동은 각성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되었다. 후손들이 흩어져 살게 됨에 따라 마을도 서동, 삼동동, 동산동, 도호동, 주수동 등 5개 자연 부락으로 넓혀진다.

1800년대의 연동은 행정구역상 전라남도에 배속된 제주목중면 연동리가 되었다.

여기에서 리는 지연 및 혈연공동체로서의 성격이 강한 부락자치제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1900년대

1905년에는 이장제가 도입되고 1917년 6월에는 다시 구장제로 바뀌어 1951년 4월까지 계속 된다.

1928년 마을청년들로 결성된 명진회는 회원간의 상부상조를 목표로 하면서도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한 문맹퇴치사업을 펼쳤다.

1948년 4·3사건이 일어난 이후, 연동 주민들은 낮에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야 했고, 밤에는 이른 바 ‘산사람’들의 총칼 앞에서 숨을 죽여야 하는 극도의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1949년 1월 11일, 중산간부락에 소개령이 내려졌다. 공비들이 이용하기 쉬운 중산간부락을 완전히 파괴하고 주민을 분산시켜 전쟁의 원화를 기하고자 함이었다.

1949년 3월, 극한상황이 진정되면서 완전히 폐허가 된 연동에 재건이 시작되었다.

1955년 9월 1일 제주 읍이 시로 승격, 시제실시하게 되면서 25개리를 40개동으로 개편되면서 불리게 됐다.

1965년 3월 16일, 연동전력개발위원회의 조직을 시작으로 행정당국의 계획에 맞추어 주민, 재외향우, 재일향우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1970년 4월에는 연동의 각 가정에 전기가 공급되었다.

전기가설을 마친 연동은 때마침 일기 시작한 새마을운동의 바람을 타고 잘사는 마을이 되기 위한 기반 조성을 굳건히 다지기 시작하였다.

1979년 이 지역에 이른바 ‘신제주’가 건설되면서부터 연동은 획기적으로 변화되었다. 신제주의 건설은 중산간 지역의 작은 취락들로 구성됐던 연동을 대단위 신항도시로 발전시키게 되었다.



연동 오름

남짓은오름

명칭의 유래

‘남’은 나무, ‘짓다’는 무성하다는 뜻의 제주말로 나무가 백백이 우거진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이 오름에 딱따구리가 살아 나무를 마구 쪼아 댔다하여 남+쫓다+오름이 되었다.

신제주 로터리에서 남쪽 가까이에 보이는 숲에 덮인 오름으로 동쪽에 마주선 것은 민오름이고, 그 사이에 정실 쪽으로 뻗은 길이 비탈지어 나가고 있다. 오름 중턱 일부의 자연림을 제외하고는 전 사면에 해송이 주종을 이루면서 자연림이 무성하고, 북서쪽의 기슭에는 산책로를 겸한 도로가 조성되어 있다.

높이는 297m, 비고 155m, 둘레는 3,072m, 면적은 637,805㎡, 폭은 939m이며, 스트롬볼리안 분출에 의해 형성된 분석구로 북서 방향의 말굽형 분화구를 갖는 오름이다.

옛날에는 마·소도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유달리 나무가 많았으며, 지금은 주요 군사 시설이 들어서 있다.

광이 오름과 위 아래로 서로 마주하고 있으며, 도보나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 구역상 연동과 오라동 경계에 있으며, 광이 오름을 가면서 거쳐 갈 수 있지만 오름에 오를 수는 없다.

제주 관광 산업 고등학교를 지나 한라 수목원 입구까지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 여기서 600m를 더 가면 한라 수목원의 주차장에 이르고, 수목원에 연한 산림욕장 부근에서 10분 정도 오르면 정상부에 다다를 수 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광이오름

등성마루가 평평하고 식물원 반대쪽은 숲으로 덮였으며, 남동쪽으로 우묵하게 작은 굽부리가 벌어져 있다.

높이는 266.8m, 비고 77m, 둘레는 1,970m, 면적은 236,701㎡, 폭은 668m이며, 모양은 말굽형[남동쪽]으로 되어 있다. 스트롬볼리안 분출에 의해 형성된 분석구로 심한 풍화 침식 작용을 받아 분화구의 형태가 사라진 오름이다.

명칭의 유래

지형이 광이[괭이] 모양으로 생겼다는 데서 광이 오름이라 불리게 되었다. 간장의 간엽과 비슷하다 하여 한자로 간엽악 이라고도 한다.

한라 수목원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의 건강 탐방로로 이용되고 있다. 국도 99호선의 남쪽을 지나면 오른편에 제주 관광 산업 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서 시내버스를 내려 좌측으로 가면 한라수목원에 이른다. 등정로를 따라 정상까지는 약 20분정도 소요 된다.

등성이를 따라 가로 지르는 산책로가 있으며, 오름의 일부가 수목원에 포함되다 보니 관리와 보존이 잘 되어 있다. 또한, 주요 지점에는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가족과 함께 나들이하기에 좋다. 정상에는 정자가 있고, 남서쪽 기슭에는 거سن새미라는 약수터가 있다.



검은오름

명칭의 유래

숲이 무성하게 덮여 있어 검게 보인다고 하여 거문오름, 검은오름이며, 검은은신(神)이란 뜻의 고조선 시대의 '검·곰·감'에 뿌리를 두는 것으로 즉 검은오름은 신령스런 산이라는 뜻이다. 풍수지리설상 거문고 형태라는 데서 금오름 이라고도 한다.

전사면은 가파르면서 등성마루가 동~서 방향으로 평평하고, 북사면은 세 가닥의 등성을 이루고 있다.

제주도 중산간 지대에 위치한 오름으로 목장 용지로 이용되어 왔고, 분화구 상단부에는 칩이 우거지고 주변에 자귀나무·보리수나무 등이 일부 식생하고 있다.

등성이에는 잡목이 자라고 있으며, 중턱 이하 기슭에는 삼나무가 조림되어 있다.

높이는 438.8m, 비고 129m, 둘레는 3,202m, 면적은 702,094㎡, 폭은 1,033m이며, 모양은 원추형으로 되어 있다. 스트롬볼리안 분출에 의해 형성된 분석구로서 북향의 말굽형 분화구와 암설사태층[알오름 또는 이류귀]을 갖고 있는 화산체이다.

1100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동쪽 목장을 따라 오를 수 있다.

제주시 우회 도로[조천~애월]와 종천로가 만나는 연동 교차로 까지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 여기서 오름으로 연하는 길을 따라 2.8km를 가면 입구에 이르며, 정상까지는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 명당으로 알려져 있어 선현들의 묘가 여기저기 자리 잡고 있다.



노루손이오름

명칭의 유래

‘노리’는 노루의 제주어이며, ‘손’은 ‘쏜’(쏘다)의 옛말로 노루가 많아서 옛날부터 노루 사냥으로 이름났던 오름에서 연유한다.

저지대의 오름 기슭은 목장 지대로 이어지고, 북서쪽에는 YMCA 청소년 센터가 들어서 있으며, 오름의 침식부로는 평평한 대지를 이루면서 암설류와 선반층이라 부르는 평평한 대지가 펼쳐져 있다. 지금은 삼나무·소나무·측백나무 등으로 조림이 되어 있어 온통 검푸른 모습만 보인다.

높이는 616.2m, 비고 136m, 둘레는 1,827m, 면적은 222,294㎡, 폭은 889m이며, 스트롬볼리안 분출에 의해 형성된 분석구로 북향의 말굽형 분화구이다. 약 30년쯤 전까지만 해도 미끈한 잔디밭 산이었는데 포장 도로가 뚫리기 전 제주시에서 어리목 코스로 등산을 하려면 이 오름을 끼고 돌아 천왕사 쪽으로 들어가야 했고, 완만한 오름의 경사면에는 마소들이 풀을 뜯는 모습들도 보인다.

정상에는 평평한 풀밭을 이루고 있으나 나무로 인하여 시내 쪽으로는 시야가 가려져 있다. 그러나 한라산 쪽으로는 아흔 아홉 골에서 어승생으로 연하는 지역을 조망할 수 있다.

1100 도로변의 제주특별자치도 축산 진흥원과 어승생 저수지 중간쯤 동쪽 도로 연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 구역상 오라2동, 연동, 해안동에 걸쳐 있다. 탐라교육원 쪽으로 200m를 가면 왼쪽에 오름으로 가는 길이 있으며, 이를 따라가면 100m지점에서 정상에 이를 수 있는데, 정상까지는 약 15분 정도 소요된다.



베두리오름

해송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 주변에는 협죽도 등의 관상수가 식재되어 있다.

높이는 85m, 비고 10m, 둘레는 617m, 면적은 21,438㎡, 폭은 240m이며, 모양은 원추형으로 되어 있다. 스트롬볼리안 분출에 의해 형성된 분석구이다.

도시 계획과 인공적인 공원 시설물의 설치로 인해 화구의 형태가 불분명하다. 제주시 도시 계획 조성 계획에 따라 시민 체육공원이 있어 각종 간이 체육 시설과 어린이 놀이터 등이 설치되어 있다.

명칭의 유래

오름 머리의 남쪽에 있는 바위가 벨[별의 제주어] 무리처럼 모여 있음에 연유되어 베[벨에서 ㄹ 탈락]+두리이를 한자어로 별두리악으로 표기한다.

이 오름은 삼무 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베두리라는 이름보다는 삼무공원으로 더 알려져 있다.

연동 한가운데에서 공원이 조성된 곳으로 이 오름 기슭까지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데, 정상까지는 약 5분정도 소요 된다. 연동의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쉽게 갈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넘어 새로운 주민자치회를 준비하자



연동주민자치위원회 문화체육분과
양영중 위원

주민자치란 거주할 주(住,) 백성 민(民), 스스로 자(自), 다스릴 치(治), 한자어 뜻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주민자치란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주민 참여에 중점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즉 주민자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한다.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활동하는 시민이라면 한번쯤은 꼭 고민하는 지점이 있다. 다양한 사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지점이다. 이 지점을 돌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주민자치라고 할 수 있다. 탁상이 아닌 현장 중심,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 행정 주도가 아닌 주민참여와 협치, 경쟁과 갈등을 넘어 협력과 포용사회로 나가는 길에는 주민자치가 있다.

1 | 왜 주민자치가 필요한가

주민자치는 지방정부 권한을 주민들이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 방법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핵심이다. 쉽게 풀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우리 스스로 주인 역할을 하면서 더 좋은 마을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2 |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자체 조례에 기반하고 있어 그 권한과 역할이 한계가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와 운영은 제주자치도 특별법을 근거로 시행령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사무의 하나로 예시했다. 지자체 조례에 기반해 자율적으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지만, 훈령에 따라 구성,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상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국한돼 있어 그 역할과 권한에 한계가 있다. 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읍·면·동 협의와 자문, 지자체 위·수탁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행정의 자문 기능에 그쳤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을 넘어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결정해 추진하는 주민대표 자치기구라는 뜻이다.

앞서 지적했던 주민자치위원회 한계에서 드러나듯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 읍·면·동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위상으로 보면 읍·면·동장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이다. 반면 주민자치회는 법률(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자문기구가 아닌 주민자치 협의·실행기구로 위상이 바뀌는 것이다.

3 |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성격과 범위가 다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업무와 함께 기존 행정체제에서 반영하기 힘든 근린자치 영역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또 주민 문화·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협의,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집행 업무 위탁업무도 가능해진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참여기구다.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문화와 교육공간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고, 지역 내 마을 의제를 발굴해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4 | 예산 편성과 집행을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실제적 권한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자치회 예산을 주민이 직접 관리 운영해야 한다.

각 분과에서 하는 사업을 제안하면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세입과 세출을 검토해야 한다. 예산확보는 필수적인데 주민세가 적격이라고 본다. 주민세는 주민을 위한 세금이다. 주민세를 주민자치회의 재원으로 하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한다.

5 |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이 바람직한 자세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 교육을 이수한 주민이면 누구나 '추첨' 또는 '추천'으로 선정되고 있다. '추천'은 특정인을 뽑는 방식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방식이다. 마을에서 주민 전체 투표나 추첨제로 주민 자치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시민이 주민자치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제도로 바뀌나가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기능 비교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 자치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주민자치회 특징

- 주민대표성: 공개추첨을 통한 주민 자치회 위원 선정
- 주민권한 강화: 주민세 및 시민참여 예산 사업선정 권한
- 주민개방성: 분과를 통한 개방적인 주민자치회 운영
- 주민공론장: 분과별 자치계획과 주민총회를 통한 사업 및 활동 결정

주민자치회 기능

- 자치계획 수립, 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 자치계획 수립, 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 및 실행
- 특히 주민자치회 간사의 경우 운영 규정에 의해 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66

초등돌봄 파업 사태를 바라보는 학부모들은 불안하다

99

연동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황경남**



코로나19로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병행 중인 초등학교 현장에서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면서 밀려드는 돌봄교실 수요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돌봄전담사와 교사 간 의견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현행대로 학교가 돌봄 업무를 맡되 시간제 중심인 운영 방식을 전일제로 전환·확대하는 게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교사들은 돌봄은 교육이 아닌 보육의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운영 주체의 학교 밖 이관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 돌봄교실은 5 천여명이 오후1시~5시까지 돌봄을 받고 있다고 한다.

교육부의 계획대로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지자체가 돌봄교실을 맡게 될 경우 지자체 예산이 많은 서울이나 일부 광역도시의 경우는 돌봄교실 환경이 나아질 수 있지만 우리 제주도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돌봄교실 환경이 현재보다 더 열악해질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의 의견은 초등 돌봄교실의 주체는 학교교사나 돌봄전담사가 아닌 우리 아이들이다 따라서 아이들의 안전, 정서적 안정감, 차별받지 않는 교육과 돌봄, 공공교육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부모만족도 조사에서 늘 90% 이상 만족도를 기록하는 초등 돌봄교실은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감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고 본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 힘을 써야 한다고 했다. 이제 우리 제주도 우리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역사회가 나서서 머리를 맞대어야 할 때이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회의에 더해 교원단체, 학교비정규직 노조, 학부모단체까지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 서로 win-win 하는 개선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66 제주농업과 제주관광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99

연동주민자치위원회 기획홍보분과

고창용 위원장



얼마 전 제주모일간지에서 ‘제주 메밀로 일군 바람 부는 밭 6차 산업 희망 되다’라는 기사를 보며 우리제주에도 이런 청년농부가 있었구나 하고 관심 있게 보았던 기억이 있다. 오늘은 이종인 보름왓 제주한울영농조합법인 대표를 만나 그간의 사정과 미래희망을 들어 보고 제주농업과 제주관광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제주 청정 중간간인 표선을 성읍리 ‘보름왓(바람밭)’ 일대에서 농업혁신을 꿈꾸는 청년 농부들이 모여 불모지나 다름없던 땅을 일궈 연간 3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오는 제주의 대표적인 유명관광지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이종인 대표는 제주농업 발전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을 이끌고 메밀 산업을 성장시켜 보겠다는 포부아래 10여 년 전부터 메밀밭을 일구기 시작했다고 한다.

단순한 농사에 머물던 제주 농촌에 가공업을 더해 농업으로 발전시키고 체험과 축제로 부가가치를 붙여넣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종인 대표는 제주도가 국내 제1의 메밀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보다 알려지지 않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많은 관광객이 꾸준히 찾는 제주이기 때문에 메밀 축제를 연다면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 하고 2015년부터 제주가 지닌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최대 메밀 생산지임을 알리기 위해 축제를 시작하여 축제 첫해에 2000명 방문을 시작으로 입소문을 타 2016년에 2만5000명을 기록 하였으며 꾸준히 성장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올해 35만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달성 했다고 한다.

이종인 대표는 위기 속에 기회는 항상 숨어있다고 하며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보다 문제가 생겨난 근본적인 모순을 찾아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생각을 수평적으로 넓혀 가는 트리즈(창의적 문제해결이론법)기법을 농사에 접목해 메밀 판매 소득을 높이기 위한 품질개선이나 원가절감, 생산확대 등 직접적 문제 해결보다 휴경 기간을 활용해 체험과 함께 가공 접목시켜 소득원을 창출하는 등 농사 근본을 통째로 바꾸는 창조적 혁신을 이뤄냈다고 한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은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고 제주관광도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언제쯤이면 제주 관광이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지, 외국 관광객은 제주를 다시 찾게 될 지 불확실성의 연속이라는 점은 더욱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분명한 건 코로나19 이후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단체관광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종인 대표의 말처럼 제주관광 일변지인 연동이 어떤 변화를 모색해야 할지, 문제가 생겨난 근본적인 모순을 찾아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차근차근 준비해보자.

지방자치 시대의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에 대한 제언



연동주민자치위원회 지역복지경제분과

진영부 위원

Community Center Committee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2006)되었고, 국가 권력과 권한의 수직적 분권(정치권력, 행정권력, 사법권력 등)을 통한 지역의 자기 결정권, 책임성을 제고하고 강화하여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개발독재와 압축성장시대의 특정 권역, 지역 중심의 발전전략에서 복수의 권역과 다양한 지역 중심의 다극적 발전전략으로 전환, 일극 집중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구조를 다극적 체제로 혁신하여 지역 특성화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화 시대를 지향 한다.

다시 말해 중앙집권 구조에서 분권, 분산, 분업형 구조로 국가 운영체계를 전환하자는 것으로 주민참여와 자치 역량 제고를 통한 지방자치 혁신과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바탕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방 자치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지역의 일은 지역 스스로 결정하는 폭넓은 자치권을 토대로 개성 있고 차별화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 되는 제도인 데다 사전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이뤄진 때문에 제도개선이 5단계 제도 개선 권한 확보와 앞으로 7단계 제도개선이 되기를 도민들의 진솔한 기대와 희망이다.

+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자치분권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진정한 주민을 위한 주민 중심의 정치가 이뤄지고 있다.

스웨덴 정치인들의 “락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알메달엔 정치박람회가 누구나 모두가 자유롭게 토론하는 각종 세미나가 열리는데 올해로 37년째 열렸다고 한다. 정책과 맞서면서 집회를 통해 이견을 주고받는 우리에게 낯선 페스티벌이지만 정치가, 시민단체, 시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제하면서 미래 비전을 실현 시키는 일이 페스티벌처럼 진행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 주민자치 예산제도

주민자치 예산제도는 주민들이 그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사업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토론과 협상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3년 광주시 북구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2011년 전국으로 확대됐고, 제주는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읍면동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사업으로 매년 읍면동 지역 공모를 통해 발굴된 사업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사업 예산 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주민이 사업발굴에 참여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행복한 지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풀뿌리 주민자치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 이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요구가 절실하다.

+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은 특별자치도 자치분권의 핵심과제이며, 상징적인 제도 중 하나다. 2006년 제주특별법으로 자치경찰제의 대표적인 국내사례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들 수 있는데, 도로교통, 생활안전, 지역경비 등 50여 개의 사무 수행을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주민 대응성이 제고되는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도의회·도청에서 제주자치경찰이 존치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을 해야 한다.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란 개념은 영국에서 형성, 법제화되어 미국 등에 도입되었다. 한국에서는 1988년에 공포된 제6공화국 헌법에 의거 “지방자치법”이 시행 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직접 선출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다.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조직한 지방단체에 의해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민 자치는 지방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방의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주민참여에 중점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 3항이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 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되, 각계각층의 주민대표가 고르게 참여하여야 한다. 로 되고, 설치목적, 운영원칙, 기능, 구성은 조례로 명시되었다.

01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은

- | | |
|----------------------------|------------------------------------|
| ① 동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 ⑧ 주요사업 예산 제안 및 건의 의견 제출 |
| ② 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⑨ 지역단위 옴부즈맨 역할 부여 |
| ③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선정 자문 | ⑩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견 제출 |
| ④ 주민의 이해 조정 | ⑪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문화 강좌 프로그램 계획수립 및 추진 |
| ⑤ 동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⑫ 주민 단합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
| ⑥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 제출 | ⑬ 그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⑦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의견 청취 및 의견 제출 | |

주민자치위원회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 후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02

주민자치위원 자격요건을 보면

- | | |
|----------------------------------|---------------------------------|
| ① 「공직선거법」제19조의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아닌 사람 | ⑤ 인품과 덕망이 높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
| ②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 | ⑥ 미래지향적이고 주민참여 의식이 높은 사람 |
| ③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 ⑦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 ④ 지역 문제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 |

주민자치위원회는 위 기능을 수행하고 책무를 다 할 수 있는 자치위원은 바로 위에 제시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과연 얼마나 기능 수행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또한 공모 방법이 지역대표위원(통장 추천), 직능대표위원(각종 직능단체장 추천), 일반주민위원, 공모과정에서 각 조직단체에서 적격자를 추천하고 있는가?

03

끝으로 주민자치가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첫째: 주민자치위원 선출 방법을 시민 추천제, 공개모집, 선정위원회 구성 등 적격자 발굴에 최대 활용되도록 개선하고, 자치조직이 형식적 조직이 아닌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대표성과 민주성이 있는 발전적인 주민 주체 조직이 되어야 한다.

둘째: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각계각층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의식을 갖고, 활발한 참여자가 자치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생활 지역 현안 자치의 핵심주체이고, 최일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인 주민조직으로 그에 합당한 위상과 역할에 대한 책무가 이뤄지는 그에 걸맞는 정당한 대우가 재정립돼야 한다.

風水地理와 水脈 수맥 탐지와 수맥파 차단방법



연동주민자치위원회 생태환경분과

박창수 위원

風水地理는 陰陽五行說을 바탕으로 하늘과 땅의 運氣를 과학적으로 해석하여 인간의 발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학문으로, 뜻 그대로 땅에 있는 산과 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그것이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하는 동양의 學文이다.

풍수지리는 산과 물을 근간으로 하는데, 山은 정지해 있는 陰이라하여 靜을 의미하고, 물은 움직이는 陽이라 하여 動을 의미 한다.

靜動이란 기를 형용하는 말로써 陰氣와 陽氣가 합해 氣가 感應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이것을 氣感應(기감응)이라 한다.

여기서 氣가 중요한데 땅의 방향과 위치에 따라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생긴다는 것이다.

地理家들은 조상의 遺骨이 酸化되면서 발생하는 전자파장과 동일한 遺傳因子를 가진 자손의 氣와 서로 感應하여 자손들에게 吉凶禍福을 미치게 한다는 것이 同期感應說이다.

풍수지리는 藏風得水(장풍득수)를 본질로 삼아 바람을 감추고 물(氣)을 잘 얻도록 하는 학문으로, 背山臨水(배산임수) 즉 산을 등지고 물을 앞에 두고 陽宅이나 陰宅을 마련하는 것인데, 인간이 살기에 아늑하고 포근하며 햇볕이 잘 들고 적당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풍수지리다.

그곳을 곧 明堂이라 표현한다. 명당에는 陽宅과 陰宅이 있기 마련이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중시하는 것이 陽宅이고, 자연순리에 의하여 돌아가신 조상의 유체에 생기가 모이게 하는 것이 陰宅이다.

/ 水脈은 어떤 것인가? /

풍수지리에서 수맥은 불가분의 관계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水脈은 地下水가 흐르는 현상인데, 지하 10~40m 깊이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수맥은 地磁氣가 강하게 모여 있는 곳이다.

또한, 수맥에서는 흐름에 따라 波長과 振動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水脈波(수맥파)다.

이 수맥은 우리의 혈관과도 같이 땅속에 사방으로 퍼져 있으며, 冷氣를 發散하여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한다.

즉 지구 내부의 핵으로부터 발산되는 지자기파와 수맥파가 부딪치면서 우리 인체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수맥파는 콘크리트, 유리, 목재, 금속 등을 거이 통과하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아파트 1층에서 수맥파가 감지되면 아파트 고층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지된다.
수맥파는 수직 상승하는 에너지로 사람에게는 면역 기능을 파괴하여 자연치유력을 떨어뜨리고, 모든 질병의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수맥파의 영향을 살펴보면/

인간에게 불면증, 무력감, 소화불량, 고혈압, 당뇨, 심장병, 유산, 청소년들의 학습능률 저하 등이 유발되고, 암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 등연구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陽宅(住宅)에는 벽에 금이 가거나, 지붕이 갈라지기도 하며, 마당에 푸른 이끼가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陰宅(墓地)에서는 상석에 금이 가거나, 비석이 이유 없이 넘어지고, 산담이 허물어지기도 한다.

/그러면 수맥파 탐사법과 수맥차단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水脈波 探查方法에는 탐사추와 수맥봉(일명 엘로드), 정자로드 탐사법이 있는데 주로 수맥봉을 사용한다.
수맥봉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다양한 제품을 고를 수 있는데, 비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탐사방법은 수맥봉을 ㄱ자로 만들고 가볍게 잡은 후 양쪽 팔꿈치를 겨드랑이서 조금 띄워 나란히 되게 하고, 수맥봉이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유지한다.
쉽게 말해 “앞으로 나란히” 자세다.
수맥봉이 정지한 상태에서 보폭을 평상시의 절반으로 줄여 앞으로 나아가다보면 수맥봉이 ×형태로 모여지는 곳이 수맥이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다시 진행하였을 때 수맥봉이 평행상태로 돌아가면 이곳은 수맥이 없거나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곳이다.
×자로 모여졌던 곳으로 되돌아가 좌, 우측으로 나가본다.
이때에도 탐사봉이 ×형태로 모이면 이곳은 주변이 수맥으로 퍼져 있는 곳이 되고, 평행상태가 유지되면 어느 한쪽으로만 수맥이 흐른다고 보면 될 것이다.
탐사봉이 ×형태로 모이는 방향에서 수맥이 들어오고 반대편 평행상태로 되는 곳으로 물이 빠져 나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수맥봉 탐사 시는 정신집중이 요구된다.
“수맥이 있으면 반응 한다”라는 생각을 집중하여 진행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水脈波 차단 방법에는/

주택에는 수맥매트, 방석, 동판, 은박지, 수맥 중화재, 달마도 요법 등 여러가지 있다.
이중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달마도 요법이다.

달마도는 중국 소림사 천연동굴에서 석가모니 제자로 수행하여 유체이탈의神通력을 얻은 달마대사의 용안을 그린 그림이다.

달마도는 검은색 먹그림으로 직접 그린 그림이 氣를 발산하여 효험을 낸다.

모 방송국에서 달마도 氣의 效能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집중취재 방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하는 복사된 그림이나 뜨개질한 것, 서각작품들은 효과가 없다.

얼마전에 방문판매회사인 H화장품에서 외판원들에게 엉터리 교육을 시키고 10~50만원짜리 수맥차단용 기카드를 동네 아줌마들에게 판매한 적이 있는데, 기가 없는 가짜카드로 판명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지금도 많은 가정집에서 이 기카드를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는 줄 아는데, 한때 우리집 한구석에도 이 카드가 있었다는 것이 어이가 없을 뿐이다.

달마도 구입은 인터넷에서 “무료달마도”를 검색하면 많은 곳이 보이는데 편리하게 택배로 구입할 수 있다.

물론 무료라 해서 공짜는 아니다. 얼마간의 보시를 해야 생기 복덕과 공덕을 얻게 될 것이다.

주택에서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수맥파가 감지되는 지점의 구석 자리에 달마도를 깔아 놓고 수맥봉으로 탐사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특히, 잠자리는 인간생활에 가장 중요한 곳으로 수맥파가 있으면 두통, 불면증, 허리, 어깨, 무릎통증이 유발되어 밤새 뒤척이며 수면부족에 시달리게 되므로 수맥파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

달마도를 종이봉투에 담거나, 곧게 펴서 잠자리 아래 장판지 밑이나, 침대 매트 아래에 깔면 얼마 지나지 않아 숙면에 들게 될 것이다.

이때에도 수맥봉 검증은 필수다.

달마도를 깔았을 때와 아니 깔았을 때의 탐사봉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

수험생 방이나 고시생 방에는 집중력 향상을 위하여 책상 아래에 달마도를 깔아 두면 좋은데 수험 성적이 부쩍 향상되었다는 소리가 들린다.

집 전체의 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관 입구에 걸어두거나, 수맥파가 감지되는 첫 지점에 달마도를 깔아 놓으면 효과를 볼 수 있다.

陰宅(墓地)에 수맥이 흘러 수맥파가 감지 될 경우는 同期感應設에 의하여 후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하므로 차단 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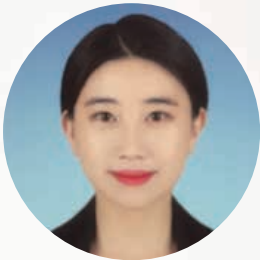
수맥파가 감지되는 지점의 산담 안쪽에 조그만 구덩이를 파고 달마도를 비닐봉투에 담아 묻은 다음 산소 주위에 술(소주)을 뿌려 혼백을 달래고 배례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달마도를 놓았을 때의 탐사봉 반응을 살펴보면 효과가 입증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풍수지리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토지의 개발과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균형개발은 물론 생활풍수로 응용하여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수맥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익히면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코로나19가 만든 달라진 제주관광의 일상



연동주민자치위원회 기획홍보분과
이문심위원의 자녀

NEW
NORMAL

어느 날, 소리소문 없이 우리 일상에 찾아온 눈에 보이지도 않는 괴심한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처음에는 이전 신종플루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백신이 생기고 어떻게든 지나갈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 19는 다르다.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줄어들 기미가 안보이자, 친한 언니가 서울에서 고향인 제주로 다시 돌아왔다. 언니의 직업은 승무원이다. 코로나 19 때문에 항공업계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단축근무, 무급휴직, 임금 삭감이 진행 중이고 언니뿐만이 아닌 언니 회사동료들은 현재 대부분 비행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했다.

식당이란 관광지든 SNS 홍보를 잘하고 맛이 있다면 얼마든지 높은 매출을 유지할 수 있었던 업종이지만 '사람이 꼭 와야만 하는 대면 서비스'를 하는 경우 코로나 19의 직격탄을 맞았다. '객단가'를 중요시 여겼던 식당들은 오히려 배달로 매출을 올리기 시작했고, 배달조차 할 수 없고 무조건 대면을 해야만 하는 관광지들은 단축영업을 시행하거나 영업을 중단했다.

코로나 19의 단계가 격상할 때마다 우리 회사에서도 직원들의 안전과 업무의 처리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고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였다. 모든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근무시간 내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마스크를 끼고 근무하는 데 굉장한 피로감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오히려 허전할 정도로 나에게 마스크는 필수인 일상이 되어버렸다.

일상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현실 자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에서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인생에서는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잡을 수도 있다.

불행과 불운은 우리 삶의 일부이다. 하지만 그것들을 행복과 행운으로 만들 수 있는 힘 또한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린 것 같다. 잘못 탑승한 기차도 때로는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는 말도 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의미가 있다. 행복한 순간도 그리고 불행했던 순간도 말이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오늘의 불행과 불운을 어떻게 행복과 행운으로 바꾸어 볼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강석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문덕만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위원장 정승익



방위협의회

회장 현창익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 고철원



민속보존회

회장 김현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김상현



통장협의회

회장 박문조



새마을부녀회

회장 김영숙



장애인지원협의회

회장 박창수



연합청년회

회장 이치석



대한노인회제주시지회
연동분회

연동분회장 조행수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오상훈

연동자생단체활동사항

▶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탁



▶ 코로나19 방역활동



▶ 코로나19 방역활동



▶ 마스크쓰기캠페인



▶ 야간 방역활동



▶ 코로나19 극복 마스크 2,000매 기탁



▶ 방위협의회의 회의



▶ 환경정비활동



▶ 클린하우스 단속



▶ 버스정류장 방역 및 환경정비



▶ 시민안전문화운동 확산캠페인



▶ 민속보존회 문화탐방



“2020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연동자생단체활동사항

▶ 마농지 알람수과



▶ 겨울나기 음식나눔



▶ 장애인 가구에 밑반찬 배달봉사



▶ 추석맞이 사랑의 후원물품 전달



▶ 정기총회-성금기탁식



▶ 사랑의 집수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 11월 정기회의개최 및 나눔물품 전달



▶ 장수사진 촬영



▶ 어린이 유괴 성범죄 추방 캠페인



▶ 학교폭력예방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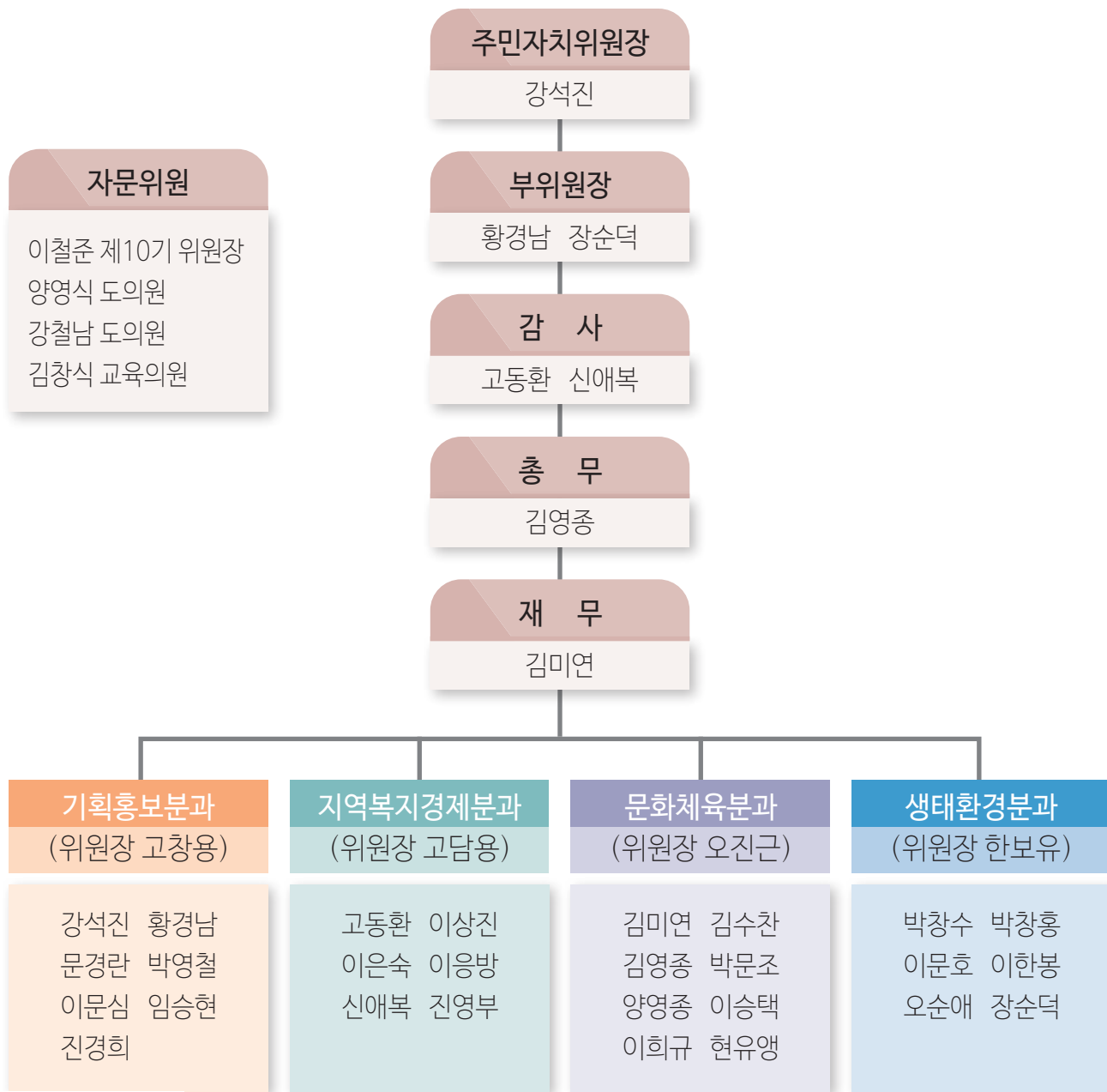
▶ 청소년지도협의회 월례회의



▶ 아동청소년선도활동



제11기 연동주민자치위원회 조직도



주민자치위원회 이모저모



정례회의



코로나19 극복 성금기탁



학교폭력예방 지역네트워크 협약식



주민자치위원회 야간방범활동



자치경찰합동 누웨마루거리 마스크쓰기 캠페인



추석연휴 마스크 쓰기 캠페인



오름 등 자생단체 환경정화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 소개 및 활동사항

기획홍보분과위원회

위원장 고창용

역할

- 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②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사항
- ④ 각종 교육 및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 ⑤ 지역단위 옴부즈맨 역할부여
- ⑥ 자매결연도시 업무제휴에 관한 사항
- ⑦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지역복지경제분과위원회

위원장 고담용

역할

- ① 주민숙원사업 등 관내 지역개발에 관한사항
- ②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 ③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의견 청취 및 제출
- ④ 동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사항
- ⑤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견 제출
- ⑥ 장학·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분과위원회

위원장 오진근

역할

- ❶ 동 단위 각종 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 ❷ 동 단위 각종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 ❸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❹ 지역발전 문화체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생태환경분과위원회

위원장 한보유

역할

- ❶ 지역환경의 보존 및 관리 방안
- ❷ 기초질서 지키기 확립 및 추진 사업
- ❸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제출





연동저널 편찬위원회 위원장
황 경 남

행복하고 매력 있는 도시 연동을 역동적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연동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제 15회 연동저널 편찬을 맡은 편찬위원회 위원장 황경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15호에 접어들고 있는 연동저널은 2020년도 올 한 해 동안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연동주민과 각 자생단체의 봉사활동을 등 연동과 연관된 각 모습들을 생생하게 담아
우리연동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연동저널은 연동지역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주민의 화합과 결속이 더욱 돈독해지고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행복하고 매력 있는 연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연동의 전 자생단체 회원님들과 지역주민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야만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시련이 찾아와 몸도 마음도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소중한 사람이나 이 글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희망을 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동 주민이 하나가 되어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연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누웨마루 (누웨마루)의 의미

신제주 지형이 누에고치가 꿈틀대는 형상으로
꼬리는 제주공항, 아래부분은 해태동산,
허리는 은남동(구 바오젠거리),
머리는 남조봉(남짓은 오름)을 상징해
지역의 인재를 배출하고 부자가 난다는 명당자리를
나타내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누웨는 누에, 루는 언덕을 뜻하는 제주어



누웨마루거리 명예도로명 명칭 변경 사유 및 추진상황

국내·외 정세 다변화로 관광객수는 큰 폭으로 줄고 다양한 패턴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연동을 상징하는 제주다운 명칭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역주민·
상인 등 도민여론이 증폭됨에 따라 명칭변경 추진



도민 OK,
관광객도 OK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제주 안심코드

사용편의 극대화

별도 회원 가입·로그인
없이 출입 인증 가능!

확진과 방문 이력과
접촉과 신속포회 가능

신원정보 암호화로
신상노출 걱정 끝!



01 제주안심코드 앱
설치 후 실행



02 본인인증 진행
최초 1회



03 QR 코드 찍고
인증 완료

제주안심코드 앱 설치방법

구글플레이스토어(Android)/앱스토어(iOS)에서 '제주안심코드' 검색 후 설치

